

예언과 세계 역사



오늘 날 시대의 징조들은 우리가 온통 투쟁적인 사건들과 사망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온 세상은 소동하고 있다. 우리의 눈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켰으나 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 24:6-8). 우리 앞에 닥친 현재와 미래는 대단히 흥미있다. 사람들은 더 크고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으며, 온 세계가 압도적인 위기의 가장자리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게된다. 신문과 미디어들의 뉴스는 매일 여기까지의 참사와 폭력들로 가득 차 있다. 예수께서는 세상 마지막에 대하여 예언하시기를,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고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일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눅 21:25-26)고 하셨다.

위대한 세상 제국에 관한 놀라운 예언

성경,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에는 과거와 현재의 많은 사건들에 대한 명확한 예언들이 예언되어 있다. 이 책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세상 나라들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계획과 인간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도와준다.

2600년 전에 선지자 다니엘은 세상 나라에 위대한 제국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나라들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서, 현재의 유럽으로 알려진 나이다. 꿈에서 다니엘은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몸의 각 부분은 이 세상에 정확하게 차 로 일어날 왕국들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 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열마는 철이요 열마는 진흙이었" (단 2:32-33)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제국들과 그 왕국 들의 독특한 특징들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짐승으로도 상징되어 계시로 보여졌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 날 것이로되..." (단 7:17).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 니" (단 7:2)라는 구절에서 "물"은 "백성, 사람들, 국가들, 방언들"을 상징한다고 다니엘 7:15에 나와 있으며, "바람"은 "전쟁"을 뜻한다고 예레미야 4:11-16에 가리키고 있다. 큰 바다로 몰려버는 하늘의 네 바람은 힘 센 나라들에 의한 무서운 정복을 가리킨다.

세계적인 특별한 세력

선지자 다니엘은 유럽에서 또 다른 세력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 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 까지 뻗었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단 7:8). 이것은 작은 뿔의 세력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이 세력은 열 뿔 사이에서 나온다 (단 7:8). 이 작은 뿔은 10개의 독일 종족 중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교황권의 세력(AD 508)을 말한다.
2. 세 뿔을 뽑아버린다 (단 7:8). 헤룰라이, 반달, 오스트로고스 세 나라가 이 "작은 뿔"의 세력에 저항했으나, 뿌리채 뽑혔다 - 완전히 파멸된 것을 말함.
3. 이것은 그 전의 뿔과 다르다 (단 7:24). 교황권은 다른 세력이었다. 이 세력은 교회와 정부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가 지배적이 된다.
4. 이것은 다른 뿔보다 더 강하다 (단 7:20). 교황권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적인 세력으로 자라났다. "암흑 시대" 동안, 사람들은 천주교의 신앙을 받아들여도록 강요받았다. 심지어 유럽의 왕과 황제들조차도 여러 세기 동안 교황권의 결정에 겸손히 복종하도록 강요받았다.
5. 이 세력은 참람된 일을 한다 (단 7:25). "그가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 이다 (단 8:25). 교황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성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살후 2:3~4). 이 성경절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세력,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세력의 사람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구절은 교황권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참람된 일을 하는지 보여준다. "이 지구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백과사전, 교황 레오 13세, 6-20-1894). 교황을 "거룩하신 아버지" 라고 부르는 것은 참람된 일이다. 예수님은 경고하시기를, 마 23:9에 "땅에 있는 자를 아바라 하지 말라 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고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많은 교황들이 수백년 동안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는(계 15:4) 무류설을 교황에게 적용시켜 "교황은 과오를 범할 수 없다" 는 교황무류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만이 가지실 수 있는 권한인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눅 5:21).

6. 이 세력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핍박한다 (단 7:25). 교황권은 종교 암흑시대에 소위 이단자 (천주교의 교리를 믿지 는)들을 처리한다는 명목아래 종교재판소를 세워 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화형시켰다. 역사가 W.H Lecky는 말하기를, "이 지구 상에 존재하는 어느 집안도 로마의 교회가 흘리게 한 순결한 성도들의 피보다 더 피를 흘리게 한 집안이 없으며, 이것은 역사

바벨론

금머리와 사자(사자는 바벨론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킴(608-538 BC). 독수리의 날개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속한 정복을 나타낸다.

단 7:4 - "첫째는 사자와 같은 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메데 - 페르시아

BC 538년에 메데와 페르시아라는 한 쌍의 두 왕국이 일어남. 꿈의 일에 몰린 세 갈빗대는 정복한 세 나라 나이다. 바벨론과 이집트를 말한다. 페르시아는 메데나라보다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었다(이것은 꿈이 그의 목 한 편을 들은 것으로 표상).

단 7:5 -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용 한편을 들었고..."

그리스

BC 331년, 알렉산더 대왕의 매우 신속한 정복과 승리는 그리스를 세계에서 위대한 국가로 만들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그리스는 네 정군에 의해 트라이스, 시리아, 마케도니아, 이집트의 네 나라로 나뉘어졌다(네 머리 참고).

단 7:6 -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로마 제국

BC 168년, 네번째 왕국으로 로마가 등극했다. 다른 나라에 대한 로마의 대항할 수 없는 명백한 진압과 정복은 그 나라를 "철의 왕국"으로 불리우게 함 (우상의 철 발과 짐승의 철 이빨을 참고할 것).

단 7:7 - "네째 짐승은 무서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기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유럽

게르만 족의 대 이동 (AD 351-476) 때문에 로마는 유럽의 작은 열 나라로 나뉘게 되었다(열 뿔과 열 발 기라 참고). 철과 진흙이 섞인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열나라로 함께 공존하는 연합된 유럽을 뜻한다.

단 7:24 -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의 꾀박으로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를 환산하기는 무 불가능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수는 대략 5천만이며, 그들이 당했던 고통을 표현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다”(Rationalism in Europe, Vol. 2, p 32).

7. 이것은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한다 (단 7:25).

교황권은 외람되게도 하나님의 법을 변경했다. “천주교 권위론답”에 보면, 그들은 계명 중에서 둘째 계명을 빼내었는데, 둘째 계명은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명 중 네째 계명,

곧 성경에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토요일)을 이방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 일요일로 변경해 버렸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네째 계명에 명시된 일곱째 날인 안식일 (출 20:8~11, 사 56:2~7) 대신 성서적이지 않은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들여왔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결코 없으며, 예수님과 여러 사도들도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다 (눅 4:16, 마 24:20, 행 13:4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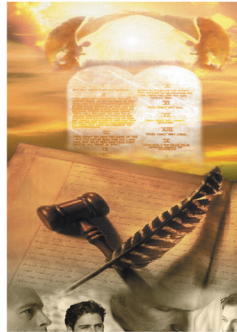
8. 이 세력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다스린다 (단 7:25).

성경에서 시간을 계산할 때, “때”는 1년, 곧 360일로 계산을 하는데, 예언상 1일은 1년을 가리킨다 (겔 4:6, 민 14:34). 세 때와 반 때는 3년 반이고, 3년 반 = 1260일이다. 그러므로 “작은 별”은 1260년을 다스릴 것이었다. 이 기간은 AD 538년, 제스티니안 황제가 칙령(정부가 로마교회에게 성직의 권세를 승인한 칙령)을 내린 때와 그 다음 동로트 왕국의 최후의 멸망부터 시작하여, 프랑스에 의하여 로마가 공화국이 되고,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의 군대에게 포로로 잡힌 1798년까지 이어졌다.

심판의 시간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즉...” (단 7:26). 다니엘은 “왕좌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산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 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 (단 7:9~10)인 것을 보았다. 선지자는 크고 엄숙한 때, 곧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심판을 받는 때에 관한 계시를 보았다. 성경은, “책들이 펴 놓였”다고 말한다.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서 설명하기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앉았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2)라고 했다. 하늘에 있는 기록책에는 사람들의 이름 (눅 10:20)과 행위 (마 12:36~37)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의 기록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목적과 동기들이 이 기록에 정확하게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실 것인데, “그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고전 4:5).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4)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심판 때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가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형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출 32:33)고 선언하셨다. 또한 기록책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모든 사람들(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벧전 4:17)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각 세대마다 차례로 하시다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끝으로 심판을 끝낼실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불려질 것이며, 모든 사람의 경우가 자세하게 조사될 것이다. 어떤 이름은 가납될 것이며, 어떤 이름들은 거절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품성과 생애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 심판될 것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회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리” (약 2:12)고 말씀하고 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가 남아 있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출 32:33)고 하셨다. 그러나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잠 28:13)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저희의 속죄제물로 주장하는 사람은 (행 16:30~31) 하늘의 책의 그들의 이름이라 “용서 받았다” 라고 써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할만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사 43:25)고 말씀하신다. 성경은 부활 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9, 살전 4:14~16)고 말하고 있



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5)고 하셨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류를 위하여 드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는 (히 8:1) 자기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구속의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히 9:24).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 가는 길을 열으셨으며, 그분께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소망과 열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보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회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 박힌 손과 상처난 몸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고후 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하나님의 계명)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희 마음이 침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 11:29-30).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의 힘과 죄책감과 죄의 참혹함을 인식하게 되고 그 죄를 혐오하는 지점에 다다른다. 그리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것과 우리가 죄의 세력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깨닫는다. 우리의 마음과 동기는 부패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차 있는 것을 깨닫고 구주의 용서하심과 순결, 그리고 자유를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살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확신과 하늘의 용서와 평화와 사랑이 요하다. 이 세상의 돈과 권세와 지혜로는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선물을 이것들을 거저 주신다. “돈 없이 값 없이” (사 55:1)... 만일 우리가 손을 뻗어 그 구원의 선물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 희 죄가 중중갈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사:18)고 하셨으며, 또 “새 영을 희속에 두고 새 마음을 희에게 주되 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겔 36:26)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13).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할 때에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지마자, 이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스스로 과거에 지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없으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렘 13:13, 엡 2:8).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 안에 성취시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 2:1~2).

마지막 자비의 기별



선지자 다니엘은 그의 계시에서, 사람들이 유럽과 세계를 서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세상에 재앙들과 전쟁들이 빈번해질 때에 하늘로부터 뜬 큰 돌이 와서 그 신상의 발과 몸을 산산히 부서뜨리는 것을 보았다. 이 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한다(단 2:34-35, 44, 시 18:32). 그리스도께서는 곧 천사들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것이다(계 1:7). 우리 인류들이 이 엄청난 사건인 예수재림을 위하여 잘 준비되고 심판 날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자비의 경고의 기별들은 요한 계시록 14:6~12절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 14:6-7).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하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알리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곧 1798년 이후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의 현 시대는 심판의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 곧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이론인 진화론을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질서를 보게 하셨다. 우연히 생긴 진화를 통하여가 아니라, 창조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롬 1:20~21).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모든 선물을 주시는 시어자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마땅히 창조주께 드려야 할 사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참된 사랑과 경배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계명은 출 20:1~17에 나와 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요일 5:3, 잠 28:9).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계명을 통하여 인간에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인

계명 중에서 네째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가리키고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날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이는 옛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 20:8~11). 이 네째 계명에는 열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 법을 주신분의 이름과 지위와 영도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안식일은 모든 인류들을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키고 있다(창 2:1~3).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감사와 존경을 드릴 것을 거듭하여 말해준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참 하나님께 충성하는 표이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찌어다 이것이나와 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희로 내가 여호

와 희 하나님인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겔 20:20, 사 56:2, 출 31:13~17).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주일 중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토요일로 존수되어 왔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진실로 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5:17~1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 족도다 무 족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 14:8).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뜻은 “혼잡”이란 뜻이다. 이것은 성서적인 의미로 여러가지 형색의 거짓된, 혹은 배도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요한 계시록 17:4~6에 보면 바벨론은 음녀라고 표현되어 있다. 성경에서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가리킨다(렘 3:20, 겔 16:35 참조). 계시록 17장에 나와있는 이 음녀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중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중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선지자는 또

한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계 17:6)것을 보았다. 바벨론은 “큰 성” (일곱 산에 앉아있는; 9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계 17:18).



바벨론의 비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는 이 바벨론의 세력은 “로마 교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보라색과 붉은 색은 로마 천주교회의 추기경과 감독들을 대표하는 색깔이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뜻은 교황권의 부를 의미한다. 이 로마 천주교 이외에 어느 교회의 세력도 다음의 성경절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는 기술에 들어맞는 단체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을 로마교회는 끔찍한 방법으로 핍박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벨론의 큰 죄악은 바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음녀가 권하는 세상을 취하게 하는 잔은 거짓 가르침 - 미사, 영혼불멸설, 영원한 지옥, 성모 마리아 숭배, 일요일 신성설 - 등을 가리킨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렇게 성경과 맞지 않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을 들여와 세상과 교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경고는 예전에는 순결했으나 지금은 부패된 모든 종교단체들을 말한다. 이것을 로마천주교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닌 이유는 여러 세기 동안 교회들은 부패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며, 바벨론은 “음녀의 어머니”라고 불리운다. 음녀의 딸들은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들(예를 들어, 일요일 신성설 등)과 그 모본을 따라가는 교회들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바벨론(혼잡)이라는 단어는 이런 교회들에 적절하게 적용된다. 이런 영적인 암흑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그 속에 아직도 많은 수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많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바벨론이 무 족다”라는 기별과 “내 백성의 거거서 나를”라는 천사의 경고의 기별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마침내 그들의 배도한 교회를 떠날 것이다.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계 14:9~10).

이 경고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에 나타난 상징들을 풀어야 한다.

짐승

여기에 언급된 짐승은 이미 계시록 13:1~10에 “표범같은 짐승”으로 언급되었다. 이 “짐승”과 단 7장의 “작은 뿔”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둘 다 정확하게 같은 세력, 교황권이라고 불리우는 세력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은 뿔”과 마찬가지로 이 “짐승”은 참말된 세력(계 13:7)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계 13:2) 세력이며, 이교 로마로 발전한(계 13:2), 1260년 동안 다스린(계 13:5) 세력이다. 얼마 후 이 짐승은 “죽게된 상처”로 인해 그 세력이 사그라진다(계 13:3, 10).

그러나 이 “죽게된 상처”가 나게 된다(계 13:3). 이 교황권의 상처가 나아 그 권세가 회복된 일은 1929년에 있는 “라테란 조약”에 싸인한 후였다. 그 때 바티칸은 소유권과 재정적인 후원 독립된 국가로서의 외교적인 권리들을 부여 받았다. 그들의 외교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힘으로 바티칸은 다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놀랄만한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 “죽게된 상처”가 나은 것이었다.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에 대해 연구하기 전에 우리는 계 13장에 기술된 또 다른 짐승의 세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



두번째 짐승

선지자 요한은 계시에서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짐승은 “물”, 곧 “백성과 우리와 열국과 방언들” 에서 올라왔지만,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다른 세력들을 꺾고 올라오는 세력과는 달리 이 국가는 서서히 평화롭게 올라와서 자라난다. 이 나라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는 다르다. 이것은 서부 대륙에서 찾아야 한다. 1798년, 교황권이 세력을 잃었을 당시 한 국가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미국이다! “새끼 양 같은 뿔” 이 상징하듯이 젊고, 순수하고, 온유한 성격은 미국의 원래의 특징과 꼭 맞는다. 시민과 종교의 자유(두 뿔이 상징하는)는 이 국가의 건국이념이었다. 교황권에 의해 핍박을 받던 수천의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세계” 인 미국으로 도망해 왔다. 이것이 미국의 탄생이다. 그러나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한다.” 그리고 첫번째 짐승(교황권)이 한 것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게 된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르기를 같이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 상을 만들라 하더라” (계 13:11~14).



새끼양같으나 용처럼 말한다 것은 미국이 말로 하는 공언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양상이 전혀 상반되는 것을 상징한다. “말한다” 는 의미는 국가가 사법적, 그리고 행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그 나라의 건국이념이었던 평화와 자유의 원칙을 반박하게 되는 것이다. “용처럼 말하고” “처음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 는 것은 미국이 처음 짐승인 교황권이

행했던 대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정신으로 변할 것을 예시하고 있다. 짐승이 두 뿔을 가졌다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이 권세를 가지고 순종을 강요하여 교황권에게 경의를 표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 오늘 날 우리는 미국과 바티칸이 그들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미치기 위하여 얼마나 밀접하게 서로 연합하여 일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할 수 있다.



이 미국이 말로 하는 공언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양상이 전혀 상반되는 것을 상징한다. “말한다” 는 의미는 국가가 사법적, 그리고 행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그 나라의 건국이념이었던 평화와 자유의 원칙을 반박하게 되는 것이다. “용처럼 말하고” “처음 짐승의 권세를 행한다” 는 것은 미국이 처음 짐승인 교황권이



더 자세한 진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 전 단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기록한 책자를 받아보 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예언 연구 과목들을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email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phecy1260@hotmail.com

짐승의 우상

초대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을 떠나서 이방의 종교예식과 관습을 받아들였을 때, 교회는 부패하게 되었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교회는 사람들의 양심을 통제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권력에 의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교회는 국가에 의해 통제 되었고, 그것이 교황권이 생기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 세력은 극으로 치달아 나중에는 이단을 처리한다는 명목아래 온갖 만행을 저 지르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종교 세력이 정부를 통제해야 하며, 교회는 예전처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세력을 빌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배도이며, 또 대 교회가 정부 세력의 도움을 구하므로 교황권, 곧 짐승이 출현하도록 인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짐승” 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리라(살후 2:3~4)고 말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날의 개신교회는 배도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길을 추구할 것이다.

지난 여년 간 개신교회들이 종교를 연합하기 위해 “종교 연합 운동” 에 들이는 노력은 점점 증가되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연합” 이라는 사상 아래 성서적인 진리들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1999년 10월, 바티칸과 루터교회가 함께 “교리 공동 선언문” 에 싸인함으로써 루터교회 세계연합회에서는 종교개혁의 무효화를 선포했다. 그러므로 “종교연합운동” 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후서에 예언한 교회의 영적인 배도일 뿐이다. 미국의 교회들이 서로의 공통 교리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지는 의도 아래 함께 모일 때,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교회가 선포한 결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도록 영향을 줄 것인데, 그럴 때에 미국의 개신교는 로마 천주교 체제와 같은 “우상” 을 형성하는 것이며, 그에 협력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이나, 벌금형을 가하므로 그 사람들은 치명적인 어려운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짐승의 우상은 결과적으로 배도한 개신교가 그들의 종교를 신장하고 그들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해서 정부의 힘을 빌리는 것을 가리킨다.

짐승의 표

두 뿔 가진 짐승(미국)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 13:16-17).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 륵이니라” (계 13:18).

천주교 교황(적그리스도)권 체제의 가장 우두머리는 교황이다. 교황의 공식적인 지위의 이름은

“VICARIUS FILII DEI” 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Our Sunday Visitor 1915. 4. 18)라는 뜻이다. 라틴어는 각 문자마다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 공식적 지위의 호칭의 글자의 수를 계산하면 짐승의 수인 666이 된다.

V and U = 5, I = 1, C = 100, A = 0, R = 0, I = 0, U = 5, S = 0, F = 0, I = 1, L = 50, I = 1, D = 500, E = 0, I = 1 ; 그리하여 합계: 666 이 된다.

한 쪽의 무리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에게 대한 묘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대한 설명을 보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 14:12). 결과적으로 참된 경배와 거짓 경배 사이의 관건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한 의 무리는 하나님의 인-토요일

VICARIUS FILII DEI		
V.....5	F.....0	D.....500
I.....1	L.....0	E.....0
C.....100	L.....50	I.....1
A.....0	I.....1	I.....1
R.....0	I.....1	501
I.....1	I.....1	53
U(V).....5		
S.....0		
112		666

안식일 - 네째 계명의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반대 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 일요일 신성설을 받드는 사람들이다. 천주교는 이를 자신들의 “권위의 표”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기원 후 364년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렸다(The Converts Catechism, P.Geiernann).

누구든지 천주교가 바꾼 것들을 알면서도 이 적그리스도의 제도가 세운 거짓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교파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네째 계명을 지키고 있는 줄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실된 의도와 정직성을 수용하시는데, 왜냐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시” (행 17:30)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부터 일요일이 새 세 계 질서 차원으로 되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법으로 강요될 때에, 그리고 세계가 참 안식일에 대해서 알게될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복수와 형벌인 영원한 죽음을 선고 받을 것이다(계 14:9~11). 인류를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 걸쳐 결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의 정부와 교회협의회에 의해 수년전에 벌써 모든 계획들이 마련되었다. 이 “새 세계 질서” 라고 부르는 단체의 목표는 “단일 정부 아래” “세계 종교” (비 성서적인)를 창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종교 연합운동단체는 정부기관들을 대표하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이 계획이 범세계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